

화승그룹, 임원 12명 승진인사

인더스트리 유연준 이사에 이봉호 이사대우 승진 발령

화승그룹(대표 현승훈)이 부사장 1명을 포함해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이사, 이사대우 7명 등 임원 12명에 대한 2004년 인사를 단행했다.



백대현 부사장



하광주 전무이사

백대현 화승VINA 전무이사가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됐으며, 이상철, 이계영 씨가 이사대우에 임명됐다.

화승R&A 이사대우에는 민경덕, 허성룡, 이완만 씨가, 화승T&C 전문이사에 하광주 씨가, 화승공조 상무이사에 정상호 씨가 각각 승진했으며, 화승인더스트리에서는 유연준 이사와 이봉호 이사대우가 임명됐다.

또 화승홍콩유한공사에는 공현배 이사대우가가 임명됐으며, 변수강 상무이사는 화승R&A로 자리를 옮겼다.

화승그룹 관계자는 “2004년 3년차가 되는 2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해외시장 공략 등 글로벌 경영을 더욱 강화하며, 그룹이 제도약 하는 데에 충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1/15>